



2026년 7월 12일(제1308호) 연중 제1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다시 싹을 틔우는 씨앗들”

저는 주일 오후마다 신병교육대대 공소에 가서 훈련병 친구들을 만납니다. 개신교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주 성실히 미사에 참여하는 훈련병 친구들을 볼 때마다 멀고 험한 길을 열심히 운전해서 찾아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당에 오는 친구들 중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성당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친구나 초등학교 때 첫영성체를 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성당에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나는 5주라는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의 첫영성체와 고해성사를 도와주며 군대에서 다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냉담하며 살아왔던 이 친구들이 간식도 잘 나오고 앉으라 일어서라 강요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 않고 “왜 굳이 성당을 찾아왔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또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열매 맺기를 실패한 씨앗들도 있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혹여나 실패할까 걱정하며 아예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볼 일말의 희망도 없이 싹 한번 틔워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성당에 찾아온 친구들도 성령께서 신앙의 싹을 틔워보려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친구들을 통해 어렸을 때 뿌려진 ‘세례’라는 씨앗을 통해서 뒤늦게 싹을 틔우고, 어쩌면 말라버렸던 싹과 같을지라도 다시 생기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씨앗이 없었다면, 이 친구들이 언덕 위 성당까지 매년 군가를 부르며 올라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라는 씨앗을 잊지 않고 성당에 다시 찾아온 친구들이, 힘들 때 다시 잠깐 싹을 틔우고 다시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싹을 틔워 수십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칫 척박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군 생활이 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좋은 토양이 되어 군대에서 신앙을 다시 배우고 전역해서도 각 분당에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훈련병들뿐만 아니라 군종교구의 모든 신자 분들도, 그리고 여러 이유로 쉬는 교우분들에게도 하느님께 받은 마음속 씨앗이 더 잘 자라나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인(시도요한) 신부
불상(육군 제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이사 55,10-11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로마 8,18-23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13,1-23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이러한 후방 부대 중 가장 효과적인 군중활동이 전개된 곳은 육군병원이었다. 병상에서 신음하던 많은 전상 장병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부들은 그들에게 대세와 병자성사를 주었으며, 수녀들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피 묻은 군복을 세탁해 주었다. 제6사단 제2연대 소속으로 625 한국전쟁 초반, 동두천 지구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대구 제27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3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절단하자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였던 이홍근은 홍 모니카 수녀의 간호로 실의를 딛고 교리를 배워 가스발이란 세례명으로 영세하였다. 그리고 그 후 동료 상이군인들을 돕는 복음적인 사업가가 되었다.

육군병원에서도 군중신부와 수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숙소 문제였다. 대개는 연병장 한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천막교회의 한 쪽을 칸막이하여 숙소로 사용하였다. 마산 제2육군병원의 경우 천막 두 개를 배당받아 성당 및 신부와 수녀의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한밤중에 태풍이 불어 천막과 옷이 날라가 신부의 제의도 도랑에 처박히고 잠자던 수녀들은 잠옷 바람으로 근처 마산 완월동성당으로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마산 제31육군병원에서 전교하던 수녀들은 간호원 숙소에서 지내다가 캐를 안 몬시놀리 제공한 5백만원으로 병원 근처에 전세집을 얻어 수녀들의 숙소 겸 병원 군중신부의 사제관으로 사용하였다. 개신교측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교 서적과 위문품을 각 육군병원에 지원하였는데 천주교측에서는 가톨릭 구제회 한국지부장 캐를 안 몬시놀리 지원하는 우유나 옷 등의 구호품과 대구교구 본당들의 간헐적인 위문 행사가 군 사목활동 지원의 전부였다.

후방의 교육부대에도 군중들이 배속되었다. 육군 군의학교(軍醫學校)에서는 김정신(야고보, 전 수원성 빈센트 병원 의무원장) 대위 등 신자 장교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장교 후보생들이 영세하였다. 영세한 후보생들은 병원 실습기간 중 입원 장교들에게 직접 전교를 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좋은 자리



위로가 되는 살맛 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 곁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읽고 모집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화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연작(2)



<동방박사의 경배>

지난주에 이어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 연작을 살펴볼 텐데, <동방박사의 경배>는 성경 속 예수님 탄생 장면을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성요셉의 성가정과 궁정복을 입은 듯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 모두 한복을 입은 한국인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한옥을 연상시키는 공간과 담백한 먹선, 은은한 담채의 표현이 한국화 특유의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깊이 절하며 예물을 바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 예법을 떠올리게 하며, 성화이야기를 우리 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찾아오신 구세주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집트로의 피난>

성가정이 한국의 산길을 따라 피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 처리와 동양화 특유의 넓은 여백, 간결한 선은 불안한 여정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성가정의 모습을 담아낸다. 이 장면은 성경 속 피난 이야기를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거듭하던 우리의 역사와 겹쳐 보이게 하며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소장 박진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무대(해병대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12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7월 1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